



신명나게 놀아보세 마당극 큰 판 선다

‘마당여우’ 31일·내달 1일 광산문화회관서 ‘권번 꽃두이’ 공연

지정남·김은숙 등
‘신명’ 출신 배우들 뭉쳐
프로젝트팀 만들어
지난해초부터 작품 준비
“권번의 藝妓 이야기
춤·소리부터 새로 배워”

후원금 편당 통해
시민들과 함께 제작

마당극 고수들이 모여 일을 벌인다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놀이패 신명의 숨겨진 작품 속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온 이들이었다. 마당극 판에서 그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웃고, 웃고, 분노하고, 위로받았다.

신명의 대표 배우들이 프로젝트 팀 ‘마당여우’를 만들었다. 마당극을 사랑하는 여배우들과 그 배우들을 사랑하는 한명의 남자 배우가 뭉친 팀이다. ‘일어서는 사람들’, ‘꽃등 들어 남 오시면’ 등 신명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작품들을 공연해왔다. ‘마당여우’ 팀은 기존의 작품과는 별개로 좀 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보자 의기투합했고 지난해 초부터 공연을 준비해왔다.

30년 넘게 마당극판을 지켜온 박강의 연출과 배우들을 연습현장에서 만났다.

‘마당여우’의 첫 작품은 ‘권번 꽃두이’(31일 오후 8시, 4월 1일 오후 3시·7시 광산문화회관). 이들이 선택한 소재 ‘권번(券番)’은 수많은 예인들을 길러낸 조직으로 전통예술의 계승자이자, 새로운 예술의 창조자였다. ‘두이’는 ‘답게, 처럼’의 의미. ‘꽃답게 웃고, 꽃답게 말하고, 꽃답게 노래하고 춤췄던’ 이들이었다.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마당극을 해온 배우들입니다. 격동기 시대를 살았던 권번의 예기(藝妓)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됐어요. 시대적 상황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려했던 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죠. 또 개인 삶의 부침 속에서 각자가 놓지 않으려 했던 것들도 자연스레 떠올랐구요. 예술판을 떠나는 자, 남아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반추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박강의 연출은 이번 작품이 “배우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다짐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지정남씨가 첫 대본을 썼고 출연자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내용들을 다듬어 갔다. 무대의 배경은 무진 권번 최고 기생이었던 최소도의 빈소다. 손님이 거의 없는 상가에 80살에 접어든, 각각의 사연을 담은 옛 권번 동료들이 모여들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수십년 무대 인생에서 다져온 베테랑들이지만 이번 작품은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다. 오랫동안 몸에 익었던 투박하고 강단진 몸짓에서 벗어나 여러여러한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역할을 해야했다. 권번이 소재이다 보니, 춤과 소리는 기본이고 발걸음 하나, 손놀림 하나 모두 새롭게 배웠다. 지난 여름부터 안무를 맡은 강혜림씨 학원에서 춤을 배웠고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윤진철씨에게는 소리를 배웠다.

인터뷰 후 작품에 등장하는 ‘춤’을 조금만 보여달라고 정했다. 신명 공연에서 보곤 했던 춤을 생각할 때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아서였다. 곧바로 치마를 두르고 곱

무를 추는 그녀들의 몸짓이 예사롭지 않았다. 초보자라고 겸손해했지만 “역시 고수들”이었다.

‘말바우 아집’, ‘춥살시위’ 사회자로도 잘 알려진 지정남씨는 최고 기생 최소도역을 맡았다.

“지금까지 했던 게 투박하고 뚝배기 같은 것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선이 고운 비단 느낌이 나서서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희망의 씨앗을 찾아서 그 씨앗을 함께 품어 안고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동료들과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동지이자 벗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술가로 비전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지씨는 “다같이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며 모두 손잡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마당극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입은 거칠지만 속깊은 ‘분위기 메이커’ 서남풍영의 김혜선씨는 “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할머니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김은숙(35)씨는 20대 초반부터 노역을 해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최고의 기생을 꿈꾸는 욕심 많은 박채선역을 맡았다.

“작품을 하면서 ‘채선이 곧 나였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고 지고 가야하는 무거운 집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가보자 했고 지금도 무대에 있으니깐요. 가족과 선배, 동료들은 제가 배우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들이구요.”

이번 작품을 통해 10년만에 무대에 서는 김현경씨는 주말마다 고흥에서 올라와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어갈 수 있다는 데 너무 감사해요. 예전처럼 객석에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게 행복합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이라 도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유일한 남배우 김호준씨는 오실장 등 1인 6역을 맡아 함께한다.

이번 작품은 시민들이 함께 제작한다. ‘꽃두이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금편당(189-121-013403 광주은행 한은주)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구좌 당 티켓 1매가 배부된다. 또 광산문화회관은 공연장을, 광주국악방송은 홍보를 지원했다. 공연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5772-7641,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



‘전라남도전라북도’

‘박문종-영산강’전

신세계갤러리 내달 4일까지

자연에 순응하는 농부의 심성을 작품으로 옮기고 있는 박문종 작가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박문종-영산강’전을 4월4일까지 연다.

그동안 농촌의 현실, 땅과 인간의 욕망을 작품 주제로 삼아온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땅에 대해 이야기한다. ‘땅’, ‘흙장난’ 등 기존 작품과 함께 ‘영산강’, ‘전라남도전라북도’ 등 신작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박 작가의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작품은 재료가 눈에 띈다. 한지, 신문지, 골판지 등에 먹과 흙으로 형상을 그린 후 붓으로 점을 찍거나 막대로 구멍을 뚫어 자연 풍경과 인물을 표현한다.

영산강 주변 지평들을 나열하고 농사 짓는 농부를 그린 높이 4m 너비 1.4m

대작 ‘영산강’은 현재 머물고 있는 담양에 대한 헌사다. 연전회에서 서화를 배운 박 작가가 정성스레 쓴 반듯한 붓글씨와 특징으로, “담양은 사람 사는 역사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좋다”는 생각을 담았다.

‘전라남도전라북도’는 황토물이 자연스럽게 스민 구겨진 종이 위에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반복적으로 쓰며 어려나이의 순수함과 자유분방한 맛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가로로 길게 물을 들인 황토물은 논고랑을 연상시키고 규칙적으로 배치된 글씨는 모를 닮았다.

박씨는 호남대학교 미술과와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다. 개인전 11회와 단체전 ‘東學(동학)’전, ‘1980년대와 한국미술’, ‘오월-1980년대 광주비엔날레’ 등을 가졌고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북덕방 프로젝트 등 다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아트상품 할인 이벤트

내달 8일까지 최대 50%

광주비엔날레가 봄을 맞아 광주비엔날레 CI를 활용해 개발한 아트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4월8일까지 진행한다.

파우치 3종(기존 1만1000원·사진)을 각각 8500원에, CI 열굴 무늬 에코백(1만6000원)은 화이트 1만원·블랙 1만2800원, 가족노트 4종(1만7800원)은 1만5130원에 판매한다. 2016광주비엔날레 EIP가 새겨진 에코백(1만500원)은 최대 50% 할인된 5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아트상품은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판매점과 광주비엔날레 소품몰(mall.gwangjuennale.org)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권번 꽃두이’를 함께 만드는 박강의·지정남·윤진철·김현경·김혜선·김은숙씨(왼쪽부터).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